

“제발 남아줘”… KB, 박지수·강이슬 잡기 ‘전쟁’

여자프로농구 2025-2026 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에는 시즌 뒤에도 농구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KB의 원투 펀치로 활약한 ‘대들보’ 박지수와 현역 최고 3점 슈터 강이슬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193cm의 압도적 높이를 자랑하는 박지수와 최근 세 시즌 연속으로 리그 3점 성공 1위를 차지한 강이슬의 조합은 막강하다.

박지수는 잠시 튀르키예 리그에 진출했던 때를 제외하면 2016년부터 졸공 KB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해왔다. 여기에 강이슬이 2021년 부천 하나은행을 떠나 KB로 이적하면서 둘은 한솥밥을 먹었다.

이들을 앞세워 KB는 2021-2022시즌 통합우승, 2023-2024시즌 정규리그 1위, 2025-2026시즌 통합우승을 이뤄냈다.

박지수와 강이슬 모두를 KB가 붙잡는다면 ‘왕조’를 이어갈 수 있다.

김완수 KB 감독은 챔피언결정전 우승 직후 이들을 모두 붙잡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왕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제게 큰 동기부여”라며 “어떻게든 이 둘(박지수, 강이슬 등)을 붙잡아 왕조를 구축하는 시너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정은 부산 BNK 감독, 최윤아 신한은행 감독, 정주원 우리은행 감독, 강이슬·박지수 KB 선수, 박문영기(VKB), 연합뉴스

팀 대들보 FA로 풀리자 비상 김완수 감독 “왕조 구축이 꿈… 두 명 모두 잡겠다” 의지 활활

하지만, FA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둘이 KB에 동반 잔류 하리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특히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한 박지수가 졸공 전열에서 이탈해 있었는데도 강이슬과 허예은을 앞세워 시리즈 ‘쌍 쏘이 승리’를 이뤄낸 건 KB 구단이 박지수의 ‘실질적 가치’를 두고 한 번쯤은 더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다.

KB에서는 박지수, 강이슬에 더해 이재은이 FA로 풀리는 가운데 준우승팀 용인

발목 부상으로 전열 이탈한 박지수 실질적 가치 저울질 할 수도 동반 잔류 이뤄질지 최대 관심

삼성생명의 베테랑 센터 배혜운의 거취도 주목받는다.

배혜운은 골 밑 플레이와 패스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실력자로 꼽힌다. 농구 지능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코트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데다 리더십도 갖춘 배혜운에게 눈독을 들일 구단은 적지 않을 거로 보인다.

삼성생명에서는 패스는 물론이고 수비력도 좋은 장신 가드 윤예빈과 활동량이

강점인 조수아도 FA로 풀린다.

이밖엔 인천 신한은행 김진영, 아산 우리은행 김예진도 FA 자격을 얻는다.

감독 중에선 2021년 KB 지휘봉을 잡아 두 차례 통합우승을 이뤄낸 김완수 감독의 계약이 2025-2026시즌을 끝으로 만료돼 구단과 재계약 논의에 들어간다.

다음 시즌에는 6개 구단 감독 중 절반인 3명이 ‘여성 사령탑’으로 채워진다. 전례 없는 일이다.

박정은(49) 부산 BNK 감독이 2021년부터, 최윤아(40) 신한은행 감독이 지난해부터 팀을 이끌어온 가운데 2025-2026시즌을 끝으로 위성우 감독이 총감독으로 물러나 우리은행의 사령탑에 정주원(53) 감독이 올랐다.

전 감독은 2012년부터 우리은행 코치로

위 감독을 보좌했으며 ‘왕조 구축’에 일조한 만큼 ‘준비된 사령탑’이란 평가를 받는다. 박 감독, 최 감독보다 나이가 많지만, 감독 지휘봉은 더 늦게 잡았다.

세 감독 모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전 감독은 선수 시절 10차례 어시스트 여왕 자리에 올랐고, 7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자프로농구 역사상 최고 포인트 가드란 평가를 지금도 받는다.

‘명품 포워드’로 불린 박 감독은 2000 시드니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2008 베이징 올림픽까지 총 4차례나 올림픽 무대를 누볐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 한 팀에서만 14년을 뛰며(전신 현대건설 포함) 7차례 우승을 경험한 이 구단 ‘레전드’다.

전 감독은 2012년부터 우리은행 코치로

연합뉴스

윤이나, 공동 4위 메이저 최고 성적 세브론대회… 우승은 코르다

윤이나(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2주 연속 ‘톱5’를 달성했다.

윤이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메모리얼파크 골프 코스(파72·681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5위에 이름을 올렸던 윤이나는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류연(중국)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26개 출전 대회에서 단 한 차례만 톱10에 들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으나 현지 적응을 마친 윤 시즌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달 포드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데뷔 후 최고 성적인 공동 6위에 올랐고, 20일에 끝난 JM 이글 로스앤젤레스 챔피언십에선 단독 4위로 개인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그리고 세브론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4위에 올라 2주 연속 ‘톱 5’를 이어갔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은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차지했다.

윤이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의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 포함 5타수 4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6-3 승리를 이끌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강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후는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인 4개의 안타를 쏟아내며 시즌 타율을 3할대로 끌어올렸다.

그는 27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의수로 선발 출전해 3루타 포함 5타수 4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6-3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친 건 지난해 9월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5타수 4안타) 이후 약 7개월 만이고, MLB 데뷔 후 3번째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7일(한국 시간) 열린 2026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출전해 4안타를 때리며 팀 승리를 이끈 뒤 방승 인터뷰 도중 ‘음료수 세례’를 받았다. 연합뉴스

3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행진을 펼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87에서 0.313(99타수 31안타)으로 크게

올랐다. 그는 지난 달 13일까지 1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한 달 동안 무서운 행보를 펼치면서 내셔널 리그 타율 10위, 최다 안타 공동 10위에 올랐다.

이정후는 0-0으로 맞선 1회말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냈다. 선두 타자로 나선 그는 마이애미 우완 선발 맥스 마이어의 시속 157km 높은 직구를 받아쳐 우의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때렸다.

아쉽게도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호흡을 맞출 못했다.

0-3으로 뒤진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가 나왔다.

1사에서 마이어의 3구째 바깥쪽 높은 체인업업을 공략해 좌전 안타를 치고 출루했다.

이정후는 루이스 아라에스의 내야 땅볼 때 상대 팀 수비 실책을 틈타 홈을 밟았다. 안타 행진은 계속됐다. 1-3으로 뒤진 5회말 2사에서 이정후는 마이어의 가운데 볼인 직구를 깨끗한 우전 안타로 연결했다.

3-3으로 맞선 7회말 공격에선 바뀐 투수인 좌완 앤드루 나르디의 몸쪽 직구를 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고 케이지 슈미트의 중월 홈런 때 득점했다.

8회말 마지막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혀 이날 유일한 범타를 기록했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 글루코사민 • 브로멜라인
 • 콘드로이틴 • 레시틴 풍부
 • MSM 첨가

A Supplement to Help Maintain the Healthy Joints of High Activity and Older Dogs
 • Glucosamine • Chondroitin from Shark • Rich in Lecithin
 Formulated to Keep a Dog at the Head of the Pack!

Net Wt. 12 oz. (340 g)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